

##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박관우의 <증인과 증언들>을 재구성하고 회상하기

- 김무호, 메구미, 박하은, 장한빛, 칼리, 한이나, 한수영, 한혜영, 홍이경, 화사와 함께한 보름의 기록

송수빈(문화살롱 5120 프로그램 매니저)

<증인과 증언들>은 기획 단계부터 프로젝트라고 부를지, 그냥 전시회라고 부를지, 모임이라고 부를지 그 명칭과 성격을 고민하게 했던 문제의 행사였다. 결국 우리는 ‘실험예술 워크숍’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2023년 10월 한 달간 5번의 만남에서 생긴 일들을 돌아보고, 참여자이자 감상자들이 남긴 ‘증언’으로 기록된 내용을 통해 이 이상하고 기묘한 만남들을 정리하였다.

- 1화. "보이지 않는 연인들"
- 2화. "증인과 증언"
- 3화. "마시다 만 술병들, 먹다 남은 음식들, 춤추는 사람들"
- 4화. "자화상"
- 5화. "너를 아마 꿈속에서 본 적이 있지"

워크숍은 회차별로 각각 제목이 붙어 있다.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작가 박관우는 매회 이루어지는 이상한 만남을 ‘1회, 1부, 1번째 모임’ 등이 아니라 ‘1화(話)<sup>1)</sup>’라고 설정했다. 즉 <증인과 증언들>은 개별 에피소드(episode)로 구성된 5부작 리얼리티 쇼 시리즈이며, 참여자들은 장면(scene)들을 구성하는 배우의 역할을 했다. 5화가 끝나면 에필로그(epilogue)로 아티스트 토크를 표방한 토론회가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이 연극에는 주인공이 없다. 모두가 거짓말일 수도 있다. 자신을 박관우 작가라고 소개하는 사람은 작가가 맞을까?

### 프롤로그 Prologue

사건은 계단을 내려가 유리문을 여는 것에서 출발한다. 참여자 A는 이미 물음표를 가지고 이곳에 왔다. 무엇을 배우는 워크숍인지, 어떤 활동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무런 정보를 듣지 못했다. 그저 스스로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 오되 내용을 잊지 말고, 모임에 빠지지 말아 달라고 여러 차례 귀찮은 연락을 받은 게 전부이다. 문을 열고, 소지품을 제출하고, 신발과 양말을 벗고, 안대를 쓴다.

“자, 준비되셨나요? 선생님의 이름은 ( ) 입니다.

그럼 제 손을 잡고 함께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명심해주세요. 앞으로 이곳에서 보름 동안 일어나는 일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삶에서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A는 문득 신청서에서 보았던 문장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여기서 우리 모두는 거짓말만 한다.” 눈이 가려진 어둠 속에서 안내자의 손에 의지해 발걸음을 떼며 ‘내가 누구였는지’를 생각한다. 이제 A는 이 안에서 두 번째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나이와 다른 취미가 있는 B가 되었다.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고, 내가 나이지 않아도 되는 -않아야 하는- 곳. 수상한 사람들이 모인 이상한 세계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특정한 사건’이나 ‘흥미로운 이야기’ 등으로 완곡하게 풀어 말할 수 있는 ‘일화(逸話)’의 ‘화(話)’이다.

## 1막 Act 1

“일하는 동안 저녁에 참석해야 할 어떤 모임이 생각났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일탈스러운 상황이 생긴 것이다.  
설렘 반 두려움 반의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떤 절차를 거치며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마술을 부리는 것 같았다.  
그 마술에 마약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민성에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모든 모임은 ‘친해지는 과정’을 동반한다. 처음 본 사람들끼리 인사를 하고, 각자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을 골라 스스로를 정의하며 본인만 알고 있던 비밀 정보들을 조금씩 공개해나가는 절차를 바탕으로 사람은 사람과 정을 쌓는다. 나의 하루, 나의 주말이 어땠는지 들려주며 내 삶의 경계선 안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점차 불러들인다.

각종 다과와 음료가 함께하는 이 워크숍은 ‘사교 모임’을 표방한다. 와인은 취기를 빌려 어색함을 깨기 위한 도구적 장치로 기능한다. 같은 색깔의 종이학 뽑기로 파트너가 결정된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계기가 우연하게 발생하듯, 다소 고전적이지만 확실하게 운에 맡기는 방식이다. 이제 워크숍의 다른 참여자들보다 파트너를 조금 더 신경 쓸 특별한 명분과 연결고리가 생긴다. 각자의 파트너를 관찰해서 기록하기도 하고, 파트너의 초상화를 그려보기도 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 그와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진다. 상대방의 선호도와 취향, 성격을 점차 파악하고 그가 좋아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을 거친다.

참여자들은 5번째 만난 날, 파트너에게 작성한 편지 (널 사랑하는 스무 가지 이유)를 김무호 대리인이 대리하여 낭독했다. 서로를 향해 따뜻하고 다정한 언어를 주고받으며 눈물을 흘리고 포옹을 나누는 이들은 이미 강한 친밀감과 애정을 서로에게 품고 있었다. 이 워크숍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선발되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 우연히 맺어진 인연이 하루에 3시간, 5번의 시간을 함께했을 뿐인데 이토록 감정이 동하는 연유가 무엇일까. 관계는 마법과 같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게 된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최초의 꿈틀거림은 필연적으로 무지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 알랭 드 보통(Alain de Botton),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1993) 中

## 2막 Act 2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당신은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에 관해 당신이 지어낸 이야기를 사랑할 뿐입니다.”

- 바이런 케이티(Byron Katie),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2007) 中

‘약속’과 ‘믿음’은 박관우의 작업에서 꽤 중요한 지점을 관통한다. 정확한 일시에 특정 장소에서 미리 선정된 사람들이 모이기로 약속하며, 숙제처럼 편지와 이야기를 써오기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용이 구성되고,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기로 약속한다. 그러나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거짓말이든 아니든, 사실로 믿어주기로 한다. 그 약속에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워크숍에 참여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공연 예술, 그중에서도 연극의 성격과 흡사하다. 정해진 대사와 연기를 수행하는 인물과 때를 맞추어 정확한 위치와 타이밍에 조명과 무대장치가 들어오고 음악이 재생되어야 한다. 수많은 약속으로 점철된 작품에서 배

우는 역할을 창조하고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이다. 자기 자신과 새로운 정체성 사이 이중적인 위치에 서 있는<sup>2)</sup> 배우는 “일상적 자아와 분열된 자아를 갖게 되고, 자신이되 동시에 자신이 아니”게 된다.<sup>3)</sup> 관객(혹은 참여자)이 자신이 하는 말을 믿고, 자신을 배우 자체가 아닌 다른 인물을 투영해서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예술 행위가 이루어진다.

믿음이 바탕에 깔린 관계는 결속력을 가져온다. 마피아 게임을 예로 들어보자. 참가자들은 특정한 역할을 부여받는다. 마피아가 된 사람들은 몰래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묘한 희열과 소속감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짜릿한 재미를 느낀다. 실제 참가자끼리 서로 평소에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라도 같은 역할을 부여받는 순간부터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진다. 때로는 진심으로 상황과 역할에 몰입해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진행자 김무호 대리인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이 거대한 게임에서 8명의 참여자는 각자 역할을 부여받은 플레이어로서 충실히 맡은 바를 수행했다. 우연히 정해진 파트너와 끈끈한 관계성이 생기기 시작했고, 점차 더욱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단계의 하이라이트를 꼽자면 3화의 ‘믿는 연습’일 것이다. 파트너 둘 중 한 사람이 눈을 가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가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금씩 방어해주며 움직인다. 이 과정에서 눈을 가린 사람은 온전히 상대방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한다.

### 3막 Act 3

*“극장이라는 공간은 오묘하다. 실시간으로 눈 앞에 펼쳐지는 가상의 세계를 만나러 우리는 그곳에 간다. 몇 시간 짜리 허구를 기꺼이 함께 용인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 … 그러나 모든 가상은 실제의 공간 속에 기입됨으로써만 관객과 만나게 된다. 피터 브룩이라는 연출가는 그의 저서 『빈 공간』에서 누군가 그곳을 가로지르고, 누군가 그를 지켜본다면, 모든 공간은 극장이 될 수 있다고 썼다.”*

- 목정원,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2021) 中

현대미술의 영역에서 말하는 관계가 설립되려면 ‘단체적인 만남’이라는 체험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작품과 관람자라는 1:1 관계가 아니라 집합적인 경험을 말한다.<sup>4)</sup>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낯선 곳에 모여서 시작된 이 실험예술 워크숍처럼 말이다. 문화살롱 5120은 미술 전시를 하기에 적합한 공간이지만 박관우 작가는 이 장소를 춤을 추고, 음식을 먹고, 파티를 즐기는 장소로 전환해 버렸다. 낮에는 작품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의 텅 빈 갤러리처럼 보여서 워크숍 기간에 전시가 있을 줄 알고 찾아왔던 관람객들이 더러 난색을 보였다. 몇 시간 뒤에 이 장소가 분위기 좋은 펍(pub)처럼 변할 거라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예술 공간에 작품이 아닌 사람들의 움직임이 개입하게 되면 “예술가가 상황적으로 조성한 관계”와 그에 수반되는 ‘사회적인 소리(social sounds)’가 존재하는 사교 활동 장소가 될 수 있다.<sup>5)</sup> 다만, 박관우의 〈증인과 증인들〉은 가장 중요한 공식을 반드시 대입해야 성립한다. 바로 ‘거짓말’이다. 이 유쾌하고 기발한 거짓말 때문에 그의 작업은 미술관의 화이트큐브 안에 사람들이 모여 행하는 퍼포먼스나 사교 모임 형태를 띠는 다른 현대미술 프로젝트들과 확연히 구별된다. 참여자들에게는 지시문이 있고 특정 행동과 역할이 주어진다. 단, 그 역할은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낸 캐릭터이며, 그 인물에 대한 정보에 사실이 가미가 되었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워크숍 진행 과정 중 여러 번 다른 주제로 진행되었던, 핵심적인 액션 중 하나는 미리 준비해온 편지 혹은 각자의 이야기를 바꾸니에 넣고 무작위로 하나를 골라 ‘마치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낭독하는 시간이었다. 즉, 모두가 이미 한 번 다른 사람인 척 연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이 되는

2) 이기호, 「배우의 연기영역과 이중의 정체성」, 『연기예술연구』 8 (2016): 48.

3) 안치운, 『연극제도와 연극읽기』 (문학과지성사, 1996), 170-171.

4) 구레사와 다케미, 『현대미술 용어 100』, 서지수 역 (안그라픽스, 2012), 102.

5) 케일럽 켈리, 『갤러리 사운드 Gallery Sound』, 배혜정·지가은 역 (미진사, 2023), 133-137.

것이다. 참여자들은 각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신인 것처럼 고백했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으며, 감정이 격해지기도 했다. 참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엄청나게 왜곡한다.” 상당수의 참여자들은 자신이 뽑은 쪽지의 내용을 들려줄 때, 본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평소에 믿는 것 혹은 개인의 경험과 습관을 더해 내용을 조작했다. 우선, 왜곡은 무지에서 온다. 텍스트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실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길이 없으나 반드시 진실을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러한 왜곡은 문자 언어가 음성 언어로 발화될 때 발생하는 특징이나 한계이기도 하지만,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쓴 이야기를 전달할 때 실제 자아와 가상의 자아 사이에 존재하는 배우가 “배우이면서도 배우가 아닌 역할로서”<sup>6)</sup> 수행하는 자체적인 대본 해석 능력, 각색의 영역이기도 하다.

5화 “너를 아마 꿈속에서 본 적이 있지”에서 펼쳐진 파티는 참여자 8인이 그동안 편지를 통해 계속해서 떠올렸던 대상을 초대하고, 일반 관객들 또한 이 세계로 끌어들여 ‘거짓말’이라는 동일한 규칙을 적용해 두 세계를 교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파티에 참석하고자 하는 신청자들에게 사전에 입력하도록 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1) 당신을 세 문장으로 소개해주세요.
- 2) 당신 성격의 특징을 다섯 단어로 말해주세요.
- 3) 처음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시나요?
- 4) 당신의 삶에서 일어난 가장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파티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 들어와 자신의 것이 아닌 이름표를 무작위로 고른다. 이름표의 한쪽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그리고 뒷면에는 그가 입력한 내용들이 적혀 있다. 사람들은 그 누군가를 ‘사칭’하며 공간에 머물고, 주변을 살펴보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낸다. 모두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규칙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표를 달고 그의 행세를 하는 일이 비로소 작동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자기 모습 행세를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인물 행세를 하는 누군가를 보기도 하는 이 파티는 모두가 ‘타자가 된 자기 자신’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짜여 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이 입력한 이름을 달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 시작했다. 오래 사람이 많은 파티장에 가면 가장 마음이 통할 것 같은 한 명을 골라 말을 걸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지만, 서로가 서로를 연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진실’은 의미가 없었다. 다들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 자신을 투영해서 또 다른 인물을 창조해내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진정한 ‘관계’가 맺어질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웃으며 춤을 추었다.

## 에필로그 Epilogue

“이 모임의 진짜 묘미는 모임이 완전히 끝난 후에 일어난다.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치자. 우리 각자는 진실을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과연 진실일까?”

-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민성에게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다. 객석을 떠나는 관객보다는 끝까지 남아 있는 관객들이 언제나 많고, 누군가는 연신 눈물을 흘린다.”

- 목정원,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2021) 中

---

6) 이기호, 앞의 글, 42.